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이안맥케이
아나키즘경제학
4th of September 2009 / 24th of November 2012

Retrieved on 4th of September 2009 from http://www.anarchism.pageabode.com/anarcho/the-economics-of-anarchy Retrieved on 24th of November 2012 http://anarchism.pageabode.com/anarcho/anarchist-economics
Notes: Two texts put together (The Economics of Anarchy and Anarchist Economics)

kr.theanarchistlibrary.org

아나키즘경제학

이안맥케이

4th of September 2009 / 24th of November 2012

차례

아나키의경제학 **3**
아나키즘의기원 3
아나키즘의여러분파들 4
소유비판 5
사회화 6
자주경영 6
상호주의 7
집산주의 8
코뮌주의 8
근거 10
달성의방법론 10

아나키스트경제학 **12**
도입 12
대안의필요성 12
아나키스트경제학은무엇인가? 13
미래식당에서의레시피는다음과같을것이다… 13
(최선의경우) 불가능하거나, (최악의경우) 국가자본주의인맑시즘 . . 14
현재를분석함으로서미래를그리기 15
현재의투쟁으로미래를건설하자 16
(자유의지주의적) 사회주의의벽돌들 16
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 18
결론 19
읽을거리 20

아나키의경제학

우리가살아가는지성의시대를마무리하고있는자, 새라페일린을인용하건대, “지금은사회주의실험의시기가아니다.”1930 년대이후최악의경제불황을겪고있는데말이다! 아나키스트들은지금이야말로정확히그시기라고본다. 자유의지주의적사회주의에한정해서말이다.

(또다시) 불황을겪고있는자본주의와국가사회주의의실패는명확한교훈을던진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신자유주의가되었고 (신노동당? 신대처주의겠지!) 스탈린주의가붕괴한지도 20 년이지났다. 스탈린주의는국가자본주의와당에의한지도를사용하여자본주의라는질병이사회주의라는약보다더매력적인것으로보이게만들었다. 아나키스트들은이에대하여무고하다고자신해도좋다. 바쿠닌과그동료들은이결과가현실이되기수십년전부터이를예견했으니까말이다.

그렇다면이제대안에대하여말해보자. 이전에, 자본주의는경제의가장최근의형태임을잊지말자. 프루동에게“정치경제학의근본해악은일시적조건, 즉사회가귀족계급과프롤레타리아계급으로나누어진다는것을최종적상태로단언하는”것이다. 노예노동이있었고, 농노들이있었으며, 그리고자본주의가등장한다. 자본주의가무엇인가? 프루동은자본주의가“우리가지금지나고있는시기, 임금노동이라는특별한성격으로정의되는시기”라고말한다.

즉, 자본주의는노동의고용에기반한, 노동 (자유) 의부분을사용자에게판매하는것에기반한경제체제라하겠다. 아나키스트들에게, 이것은잘쳐줘야“임금노예제”다.

아나키즘은노동자의연방을, 자유로운노동을원한다. 이는노동하는자가그노동을통제하여야한다는것이다. 장기적으로우리는노동의철폐 (노동과놀이가같은것이되는) 것을꿈꾼다. 크로포트킨을인용하자면, 우리는“모든인민이자유로운노동, 즉스스로의노동과자유를, 그것을통하여부를축적하는타인에게팔지않아도되는상황을건설”하려한다.

아나키즘의기원

아나키즘은도서관에틀어박힌사상가들의작품이아니다. 그근원은, 크로포트킨이그의걸작“현대과학과아나키즘”에서강조한것처럼, 노동계급인민들의착취와억압에대항한투쟁과자주적행동에있다.

우리는더나은사회와자본주의를관념적으로비교하지않는다. 대신우리는자본주의안에서자본주의에대항하는투쟁에서만들어질새로운세상의구조를바라보려한다. 그렇기에우리는파업을조직하기위한총회와위원회들이자유로운사회에서는생산을조직하는현장조직이될것이라바라본다. IWW 를인용하자면, 옛세상의껍질안에서새로운세상을건설하는것이다.

아나키즘의여러분파들

아나키즘 (자유의지주의적사회주의) 에는일반적으로세분파가있다. 상호주의, 집산주의, 코뮌주의가그것이다. 아나키즘적조합주의는목적이라기보다는전술에가깝고, 그렇기에그지지자들은저셋중하나를지향한다. (일반적으로이들은아나키즘적코뮌주의를지향한다. 최초로아나키즘적조합주의전술을구상한바쿠닌이스스로를집산주의자라고자칭하였음에도말이다.) 실천에있어, 여러영역들에서인민의의사와마주한조건에따라여러방식들을실험하게될것이다. 자유로운실험은자유의지주의원칙의기본이다.

이세분파가특정문제에대해다른의견을가지고있다하더라도, 이들은특정한핵심원칙들을공유하고있다. 만약누군가가어떠한것을“아나키즘”이라고부르지만이중하나라도부정한다면, 우리는그것이아나키즘이아니라고말하면된다.

첫번째원칙은사적소유가아닌점유의원칙이다. 프루동은 < 소유란무엇인가 > 에서자유사회에서는사용권이소유권을대체할것이라고말한다. 이는자연스럽게부의평등한분배를의미하기도한다. 두번째원칙은사회화이다. 이는작업장과토지에대한자유로운접근권을, 결과적으로지주와사용자들의종식을의미한다.(이는“점유와사용”이라고도불린다. 세번째원칙은자발적조직, 혹은생산자에의한생산의자주통제다. 이러한노동자조직의이름은다양할수있지만 (협동조합, 노동조합, 집단생산, 노동자기업등) 원칙은동일하다. 마지막핵심원칙은자유로운연방이다. 이는동적경제에필수적인자유연합간의자유연합에, 생산자간의, 공동의이해관계에기반한협력적연방간의수평적연결에기반하는것이다. 이는탈중심화에그뿌리를두고있기도하다.(자본주의사회의기업과스탈린주의사회의국가경제가증명하듯, 중심화는작동하지않는다.) 이는상향식으로, 위임되었지만소환가능한대의원들을바탕으로조직될것이다.

바쿠닌은“토지는경작자에게, 농업코뮌에게속해야한다. 생산의도구는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조직에게속해야한다”고이러한종류의경제를요약하였다. 자주통제적사업장에서의의사결정요인은자본주의사회에서의그것과구조적으로다를것이다. 크로포트킨을인용하자면, 제정신박힌사회의경제는“인간의필요에관한연구, 그리고그것을만족시킬수있는경제적수단에관한연구.”여야한다. 오늘날우리는여기에생태주의적고려를더해야하며, 크로포트킨역시도이에

조직하여그것이모든필요를충족할수있도록해야한다.”그리고이것은모든인간의, 모든유일한개인의필요를말하는것이다. 즉, “소비자”로서, 생산자로서, 공동체구성원으로서, 생태계의일원으로서의사용가치를말하는것이다. 자본주의가거부하거나, 타인의비용을대가로부분적으로만충족하는, 하지만우리의삶에서필요한측면들에대한것말이다.

맑스주의자들과달리, 우리는우리의현재경제구조가계급위계내의이윤동기가만들어낸상처들로가득함을인지하고있다. 그렇기에우리의단기적목적은자본을수용하여그것이인간의필요를충족하게끔하는것이라면, 우리의장기적목적은산업과산업구조를변혁하는것이다. 우리는레닌이말한것과는다르게, 자본주의아래에서“효율적인”것이, 사회주의를위하여좋지않다는것을인지한다.

먼저언급하였던것처럼, 아나키스트경제학은혁명이후에, 아나키스트경제가만들어진이후에만들어질것이다. 우리의시야는자본주의적선입견에둘러쌓여있기에, 우리는그결과를예측할수없다. 우리가할수있는것은계급과위계의철폐위에태어날자유의지주의적사회의밑그림을그려내는것이다. 그리고이밑그림은자본주의에관한우리의분석과비판에, 그에대항한투쟁에, 우리의희망과꿈에기반할것이다.

읽을거리

이문건은아나키즘경제학에대한단편적소개글에지나지않는다. 아나키스트 FAQ 의섹션 1 은이문제를더자세하게다루어, 자주경영, 사회주의, 시장의문제, 탈집중화의필요성등을다루고있다. 수년전나는아나키의경제학이라는제목으로발제한적이있다. 이발제에서나는아나키스트주요분파들에대하여요약한바있다. 프루동의상호주의는 < 소유는도둑질이다!> 의서문에서논의되었으며, < 기반을닦다: 아나키스트경제학에대한프루동의기여 > 에서요약되었다. 아나키스트 FAQ 의섹션 H 는맑스주의적경제상의문제들을다룬다. 특히, 섹션 H.6 은자본주의적기구를도입하기위하여볼셰비키가감행한공장위원회에의공격 (크로포트킨이당대에썼듯, 우리는“코뮌주의를어떻게도입하지말아야할지를러시아를통해배우고있다”) 을다루고있다. 그리고만약고유주의자[2]께서이글을읽고계시고, 내가사용하는바자유의지주의라는단어가잘못되었다고주장하신다면, 그단어를만들어낸것은우리사회주의자들이었다고말해두겠다.

[2] 역자주 - 아나코-캐피탈리즘의분파. 어떠한도덕적가치도소유권에우선할수없다고주장함.

동의했을것이다.(그의고전 < 농장, 공장, 작업장 > 은분명히생태주의적관점을가지고있다.)

소유비판

자유경제에관한아나키스트의상을이해하기위해서는, 아나키스트의자본주의비판을이해할필요가있다. 잘알려졌듯이, 프루동은“소유는도둑질이다”라고주장했다. 그리고이말은두가지함의를가진다. 먼저, 지주들은세입자들의생활수단에대한접근권을판매한다. 그렇기에집세는착취다. 다음으로, 임노동은착취다. 노동자들은임금보다더많은일을하게된다. 프루동을인용해보자.

“노동하는자는누구나소유자가된다. 이사실은현재의정치경제학과법학의원리들안에서부정될수없다. 그리고내가소유자라고말할때, 우리위선적인경제학자님들처럼봉급, 임금, 급료등의소유자들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내가말하는것은자신이창출하는가치의소유자들이다. 그가치를자신이창출했음에도불구하고주인만이그혜택을독차지하고있지만말이다. (…) 〈일하는자는심지어자신의임금을받은후에도, 자신이생산한사물에대한자연적인소유권을가진다.〉”

이는프루동의“소유는전제주의다”의근거가된다. 다르게표현하자면, 프루동은소유가위계적사회관계를만들고, 이권력구조는소유자들이노동자에게갑질을할수있게끔하고, 노동자들의착취를담보한다. 프루동을다시인용하자면,

“당신은임노동자가된다는것이무엇인지아는가? 그것은업무지시만큼이나그이상으로자신의선입견에집착하는사장 (…) 밑에서일하는것이다. 그것은끊임없이남들의생각을연구하면서스스로는아무생각도가지지않는것, 일용할빵과일자리를잃을두려움말고다른자극제를모르는것이다. 임노동자는그를고용한소유권자가이런연설을하는것을듣는다. ‘당신이해야할것은당신과조금도관계없다. 당신은그것을감독할것이전혀없으며, 당신은책임지지않는다.’”

결국, 전술하였듯, 소유권을사용권으로대체할필요가있다. 사적소유는오직사용하는것에대해서만존치되어야한다. 알렉산더버크만을인용하자면, 아나키즘은

“생산수단과생산물의사적소유를철폐하고, 이를통하여자본주의적기업을철폐하려한다. 사적소유는오직사용하는것에대해서만존치되어야한다. 즉, 시계는당신의것이될수있지만, 시계공장은인민에게속해야한다는것이다. 토지, 기계, 다른모든공공시설물은집단적으로소유되어살수도, 팔수도없어야할것이다. 실질적사용이야말로유일한명분으로취급될것이다. 소유가아닌점유를실현할것이다. 탄광노동자들의조직이탄광을책임질것이다. 하지만그들은탄광을소유하는것이아니라, 탄광의가동위원회가될것이다. 철도노조가철도를운영할것

이고, 다른산업에대해서도이와같다. 공동체의이익을위하여협력적으로운영되는집단적소유가이윤을위하여사적으로구성되는사적소유를대체할것이다.”

프루동은이를“주인이없는점유자들”이라고요약한다.

사회화

모든아나키스트들이“사회화”라는단어를사용한것은아니지만, 이것은자유사회에의필수적기반이며, 당연하게도이개념은아나키즘의근간이다. 이단계를거쳐야만생산수단에대한자유로운접근이담보되고, 결국전반적인자주통제가가능해지기때문이다. 엠마골드만과존모스트가주장하였듯, 사회화는“논리적으로모든주인과하인의관계를삭제한다.”

이는아나키즘이아나키즘이라불린순간부터, 아나키스트들의입장이었다. 1840 년프루동은“토지는우리생명의보존에필수불가결한사물”이며, “따라서공통의사물이고, 따라서전유될수없는것”이라고, “모든축적된자본은사회적소유이므로, 누구도배타적인소유권을가질수없다”고주장했다. “농부는그가경작하는토지를전유하지않”으며, “모든자본은 (…) 집단적노동의결과물”이기에“집단적소유”가되어야한다. 당연하게도, 프루동은“민주적으로조직된노동자조직”을주장했고, “조직의규약아래부의이전은노동의도구에적용되지않을것이므로, 불평등의원인이될수없다.”고주장했다.

경제학자데이비드엘러만이설명한것처럼, 민주적생산현장은“사회적공동체이고, 생활의공동체는아니지만노동의공동체이다. 민주적현장은현장의공화국, 아니공동의통치 (res publica) 를건설하는것이다. 생산의궁극적통제는그기업에서일하는인민들의권리로주어질것이다. 이분석은기업이사회화되면서도, 국유화되지않는다는의미에서‘사적인것’으로남을수있는지를보여준다.”

자주경영

사회화의논리적귀결은노동시장이없어지는것을의미한다. 인민들은단순히가입할생산자조직을찾을것이고, 생산자조직은연대할조직들을찾을것이다. 임노동은과거의것이될것이고, 그자리는자주경영이대체할것이다.

이는“노동자자주통제”라고불리기도한다. 혹은, 프루동의말을빌리자면, “산업민주주의”이자현장을“노동자의작은공화국”으로만드는것이다. 크로포트킨은자유의지주의적경제는“대지에서, 공장에서, 광산에서일하는이들의조직이스스로생산의관리자가되는”것에기반해야한다고말한다.

하고, “그서로다른요소들을구분”하여우리의경제적, 사회적의사결정을위하여통지할필요가있다.

그렇기에우리는자유로운사회의연방적구조를통해자원분배의가이드라인에합의할필요가있다. 이를테면, 의사결정의다양한요인들에대한가중치는생산물을만들어내는각단계의비용-편익분석을통하여만들어질수있다.(이전의결정이옳았고, 비용에대한소통이이루어졌다는전제로) 이는객관적인가격을 (생산에소요된시간, 에너지, 자원) 반영할수있게할것이다. 하지만수요와공급의변화는어찌할것인가? 이는중요한문제다. 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사회는요구 (수요) 에따라재화를생산 (공급) 할것이기때문이다. 무엇보다, 각각의작업장들이예상치못한상황들, 즉생산이나공급의단기적변화에대비하여재고를유지할것임은상식적인일이다. 더하여, 각작업장들은요구와 (혹은) 생산의상대적 차이를포함하고있는희소성지뵤츨가지고있을것이고, 이는다른작업장들이대안을찾을수있도록이용될수있을것이다. 그렇기에만약하나의생산물의공급에 차질이생긴다면, 희소성지표가오를것이고, 다른이들에게다른작업장에연락하라거나대체제를물색할필요가있음을알릴수있을것이다.

작업장들의연방은둘모두의변화를점검할방도를찾을것이다. 그리고이로써대규모프로젝트에대한투자나투자철회를조직하게될것이다. 이는공동체내에서의, 이해관계자집단과사용자조직과연방에서의논의에기반하여이루어질것이다. 투자역시다른층위에서이루어질것이다. 개별적작업장들은조합원들의더많은자유시간을위하여생산시간을줄이고, 생산량을늘리기위하여투자할것이다.(그리고이것이창조적작업과생산성에대한진정한인센티브가될것이다.) 연방조직의필요성은, 서로다른결정들이서로다른층위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그 사실에구체적으로근거한다.

하지만생산은단순히재화를생산하는것이상의의미를가진다. 가격의절감이나기술적가능성의문제보다더중요한것은인간적인문제다. 그렇기에우리는 (이윤극대화나시간의절감과같은) 단일한객관적기준을거부하고, 큰그림을보아야한다. 자본주의가“이것이싼가?”에기반하였다면, 자유의지주의적경제는“이것이옳은가?”에기반할것이다.

결론

궁극적으로, 우리는경제적자유에대한자발적흥미를가지고있다. 나는사장의노예가되는것이어떻게이기심의예시가되는지이해하지못한다. 하지만부르주아경제학은그렇다고말한다.

크로포트킨이강조하였듯, “생산은인간의필요를바라보지않게되었고, 완전히잘못된방향으로향하고있으며, 그조직은오류를범하고있다. 우리는생산을재

이는물론작업장의환경과노동그자체의변혁을내포하고있다. 많은사람들은자유의지주의적사회주의가자본주의적인산업구조와노동의방식을가져와내버려둘것이라생각하는듯하다. 과연사회혁명이후에노동자들이그렇게할까?

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

다시한번, 이것들은아나키즘의모든분파들에서공통적으로보이는이론이다. 분파간의핵심적차이는분배의문제에있다. 소비를이루어진노동에기반하여조직할것이냐, 아니면코뮌주의적으로조직할것이냐의문제, 즉, 오래된행위와필요논쟁이다.

대부분의아나키스트들이코뮌주의자임은분명하다. 여기서코뮌주의자 (코뮤니스트) 라는것은소비에트연방에서의그공산주의자를이야기하는것이아니라, “능력에따라일하고, 필요에따라분배한다”는의미에서그러하다. 대부분의아나키스트들은이것이최선이라는것에동의할것이다. 그이유는크로포트킨이잘설명하였기에, 굳이여기에서요약하지는않겠다.

이러한체제가빠르게달성될수있는가는, 얼마나정교하게작동할것인가는아나키스트서클들에게논의할여지가없는것이었다. 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사회는그사회를건설한이들의열망과, 그들이마주하는객관적조건들에기반하여발전할것이다. 하지만우리는오늘날그러한체제가가져올당연한문제들에대하여논의할수있고, 하여야한다.

상호주의와는다르게, 상품의가격이란존재하지않을것이다. 이윤추구동기는경제적공황을가져오고, 자본주의아래에서불확실성을더한다. 그리고비자본주의적인시장에서도역시많은문제가있을것이라보는것은합당하다고생각한다. 하지만시장가격은경제적의사결정의이정표가될수있다. 그가격이노동, 원자재, 생산소요시간등실질비용을반영하는이상 (물론그과정에서더많은것들을무시하거나, 숨기지만말이다.), 생산상황의변화를반영하는이상 (이상황이라는것이독점이나이윤등자본주의적조건에의하여왜곡된것이라해도) 말이다.

그렇다면가격이없이자원을분배할수있는최선의방법은무엇이냐는질문은당연히제기될수밖에없다. 하지만이질문은당연하지않다. 이를테면, 금과납은비슷한사용가치를가졌다. 왜하나를사용하고, 다른것은사용하지않는가? 시장때문이다.(금이 1kg 에 100 파운드이고, 납이 1kg 에 10 파운드라는것은무엇을선택할지고르는것을단순하게만든다.) 그렇기에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경제에서는, 인민들이실질적인비용과생산의조건에대하여, 시장의왜곡효과없이통지받아야한다. 크로포트킨이말하는것처럼, “아직도우리가가격이라고부르는것을그저우리의행동을지도하는맹목적최고지도자로받아들이는것보다, 그종합적결과를분석하는것을시작하지못하였나?”그렇기에“우리는가격을분석”

이는보통선거의원칙 (그리고평등한구조) 에, 소환가능한행정노동자에게, 육체노동과지식노동의결합에, 노동력의분할이아닌노동의분할에기반해야한다.

그렇기에프루동은작업장이“작업에참여하는이들의공동의, 불가분의자산”이어야지, “임노동자의육체와정신을착취하는주주들의집단”의것이어서는안된다고제안한다. 이는“조직에가입한모든개인”이“회사의자산모두를가지”고, “모든직위는선출되어야하고구성원들에의하여승인되어야하기에”“어떠한직위라도할수있는권리”를가져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아나키즘의모든분파들은이러한원칙을내재하고있지만, 그들사이에는분명한차이가있다.

상호주의

처음으로이야기할분파는상호주의분파이다. 이분파에서가장유명한것은프루동일것이다.[1]

이체계는시장을수인한다. 이는자본주의를내재하는것은아니다. 시장이그체제를정의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자본주의가발발하기수천년전에도시장은존재했다. 자본주의를특징짓는것은상품의생산과임노동이다.[2] 이는상호주의가상품의생산에기반하고있지만, 임노동은자주경영과협동조합으로대체된형태를의미한다.

이는분배가필요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이루어진노동양에의하여, 행위에의하여이루어짐을의미한다. 노동자는그노동의모든생산물을가져야하지만, 이는다른협동조합원들의수고에대하여보상한이후에그렇게하게될것이다. 이는협동조합이투자하지않을것을의미하지않는다. 협동조합은세계전체로서그들의집단적수입의얼마만큼이개별구성원들에게분배되고, 또얼마를협동조합의사용을위해남길것인지를결정할것이라는의미이다.

신고전학파경제학자들은협동조합이높은실업율을낳을것이라주장한다는것을기억해보자. 하지만, 그이데올로기가항상그러하듯이, 이는거짓된가정에기반한것이며, 결국그예측은관측된사실과전혀무관한것이된다.

---

[1] 경제학계에서, 이체계는“조합주의”나“시장조합주의”라불리우기도한다. 특정한주제에대해거의모르는것은이러한오류적글쓰기를가능하게한다.

[2] 엥겔스를인용하는것이마음에들지않을지는모르겠으나, “생산의목적, 즉상품의생산은생산수단에자본의성격을가져오는것이아니다.”“상품의생산은자본존재의전제조건중하나이기때문이다. (…) 생산자는그가생산한것만을팔기에, 자본가가아니다. 생산자는생산수단을사용하여다른임노동자를착취하기시작하는순간자본가가된다.”엥겔스는맑스가 < 자본 > 에서행한분석을반복하고있다.(그리고맑스는, 프루동의소유와점유에대한구분을반복한다.)

자유신용역시상호주의의핵심사상이다. 인민은행을조직하고, 인민은행의유지비는이자 (거의 0% 의) 를통하여확보하게될것이다. 이는노동자들이스스로의생산수단을만들수있게할것이다. 신고전학파경제학은상호금융이신용을창조함으로써화폐공급을늘리기에인플레이션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말한다. 하지만신용이무작위로생성되는것이아니라, 더많은재화와용역을생산하기위하여투입되는“합리화”과정을거쳐생산되기에, 이는분명한오류다. 그렇기에자유신용은적은재화에기반한더많은화폐를의미하지않고, 더많은재화를생산하기위한화폐를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산업연방에대하여이야기해야한다. 프루동은고립된협동조합이직면할문제를인지하고, 연대와상호부조, 지지에기반하여위험을절감하기위한연방을조직할것을제안한다. 모든산업이상호연관성을가지고있기에, 노동자조직들이서로를지지해야한다는것은분명해보인다. 나아가, 이연방은시장세력에의하여자본주의가부활하는것을막는방법으로도적용될수있다. 또한연방은철도, 도로, 보건등공동체적으로소유되어노동자협동조합에의하여운영되어야하는공공서비스를운영하는방식도될수있을것이다.

상호주의는전략적으로개량주의적이다. 상호주의는자본주의를대안기구와경쟁이라는수단을통하여대체하고자한다. 소수의아나키스트들이이관점을지지한다.

집산주의

다음으로설명한아나키스트분파는집산주의다. 가장유명한집산주의자는바쿠닌일것이다. 집산주의는상호주의와유사하지만, 보다덜시장의존적이다.(하지만여전히행위에의한분배에기반하고있다.) 하지만집산주의는보다코뮌주의적요소들을가지고있으며, 그지지자들다수는집산주의가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로진화할것이라바라본다.

결국, 집산주의는상호주의와코뮌주의사이의어딘가에있는것으로, 두분파의요소들을공유하고있다. 그렇기에, 우리는집산주의에대해서는더논의하지않을것이다. 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와마찬가지로, 집산주의는자본주의를개량할수없다고바라보는혁명적분파다.

코뮌주의

먼저, 코뮌주의는맑스-레닌주의나스탈린주의가아니다! 그것은국가자본주의이지, 결코코뮌주의적인것이아니었고, 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의경우는말

동자의조직”이“광범위한연방”으로단결하는것은핵심적인상에대한훌륭한요약이다.

이러한경제는사용권, 점유, 사회화가사적소유와국가소유를대체하게될것이다. 생산의자주통제역시 (크로포트킨이항상강조하는것처럼, 노동자들은“산업의실질적통제자가되어야한다.”) 이를따를것이다. 그렇기에, 산업/농업/공동체의사회경제적연방이사용자와그이해관계, 그리고사용자그룹에따라구성되어야할것이다.

아나키스트경제는탈집중적경제일것이다. 크로포트킨이주장한바, “사회혁명으로부터귀결할경제적변화는매우거대하고심오할것이어서, 하나의개인, 혹은여러개인들이새로운사회형태를상세히말하는것은불가능한것이다. 이는오직대중의집단적작업으로만서술될수있다.”이는결국참된자치와수평적관계에기반한경제적체들간의자유로운합의 (혹은계약) 의필요성을의미한다.

간단하게말하자면, 생산은탈집중화될필요가있고, 집단간의합의로대체될필요가있다. 집중화된체는주관에따라구성되는 (사용가치는, 그정의에따라, 주관적일수밖에없다.) 특정한필요를충족할수없다. 또한집중화된체는언제, 어떤재화가필요한지인지할수도없다. 만약그인지를시도한다해도, 결국이들은데이터의늪에빠질수밖에없다.

이는개인과작업장, 공동체모두에적용할수있는것이다. 크로포트킨이예견하였던것처럼, “강력한중앙집중적정부가사전에계획한수량만큼의”재화들이“특정한날, 특정한장소로보내어질것을명령”하고, “특정한관료가특정한날에그것을특정한창고에적재하는것”은“올바르지않을”뿐더러, “매우유토피아적”이다. 실현가능하고매력적인사회주의는인민의“협동, 열정, 지역적지식”을필요로한다.

이러한체제는적합한기술에기반할것이다. 여기에서나는아나키스트들이대규모산업에반대하지않으며, 프루동으로부터꾸준히그입장을명확히하여왔음을강조할필요를느낀다. 그렇기에우리는크로포트킨이주장하는바와같이“현대산업을분석하여보면, 우리는그중일부가수천수백의노동자들이한공간에모여협업하는것을필연적으로요함을알수있다. 거대한철공소나광산기업들은필수적으로이범주에속한다. 대양증기선은마을공장에서만들수없다.”자유로운사회에서산업의규모는객관적필요에의하여결정될것이다. 이는이윤동기에따라결정되어기술이요하는규모로만족하지못하는경향이큰자본주의사회에서의그것과는다를것이다.

나아가생산은누적에기반할것이고, 분할에기반하지는않을것이다. 업무의분장이분업을대체하여육체노동과정신노동을, 산업노동과농업노동을조합하게될것이다. 농업과산업은자유공동체에서공존할것이고, 인민들에게다양한종류의노동을제공할것이며, 주문자와생산자사이의분할을없앨것이다. 흥미로운일을할수있는행운의소수와불결한환경에서지루한일로고통받는다수의분할역시종식할것이다.

현재의투쟁으로미래를건설하자

오늘날우리는오직자본주의만을분석하고, 그움직임을이해하고, 그에내재된미래지향적요소들을인지할수밖에없다. 우리는두가지형태, 즉자본주의에내재된물적요소 (대규모생산등) 와, 자본주의에반하는요소 (노동조합, 저항, 파업등) 을본다.

이중후자는아나키즘의핵심이며, 아나키즘과 (일반적으로전자를강조하는) 맑시즘을구분하는요인이다. 그렇기에우리는프루동이 1848 년혁명과정에서, 바쿠닌이나크로포트킨과같은혁명적아나키스트들이노동운동을바라볼때, 협동조합적작업장과공동신용을지향한것을유념할필요가있다. 이를테면, 혁명적아나키스트들은“직종에따라조직된노동자들이산업의모든부문을장악하고, 그 산업을사회적편익을위하여관리하여야한다”고주장했다. 그리고우리는자본주의적압제와착취에맞서싸우는파업을위한총회가, 쟁의대책위원회가, 노동조합총연맹이미래의사회주의경제에서사업장의총회로, 위원회로, 연방으로손수이변할수있음을본다.

이관점은사회주의가어디로부터오는지에대한이해를제공한다. 사회주의는자유를위해투쟁하는압제당한자들의자기행동으로부터, 아래로부터온다. 이는결국, 자유의지주의적사회주의의기본구조는노동계급인민들이착취와압제에반하여진행하는투쟁의과정에서건설된조직임을보여준다.

이에는시간이필요할것이다. 크로포트킨이강조하였듯, 아나키스트들은“혁명이일부사회주의자들의몽상마냥한순간에, 눈깜짝할새에다가오리라믿지않는다.”이는그가사회혁명이마주하게되리라제대로예견한경제적문제에관해서는특히옳다. 그렇기에크로포트킨이주장한바“우리는혁명이공개적으로코뮌주의적이거나, 실로집산주의적인성격을그반란적서곡에서부터드러낼수있기를기다려야하는가. 그것은혁명의사상을한번에, 모두던져버리는것과같은것이될것이다.”그리고이는모든혁명에서관측될수있다. 심지어스페인혁명과, 그과정에서 CNT 의조합원들에의하여건설된집단생산은아나키스트들이계획한것도, 원한것도아니었다. 오히려이는시대가요하는특정한조건의산물이었다.

(자유의지주의적) 사회주의의벽돌들

그렇기에아나키스트경제학은, 혁명이후, 아나키스트경제가발현하는과정에서발전할것이다. 하지만우리는여전히그기초에대한개론은이야기할수있을것이다.

아나키즘의모든분파들은상당한공통점을가지고있다. 프루동이주장하는바, “토지와노동의도구는사회적으로소유되어야”하고, “민주적으로조직된노

할것도없다. 대부분의아나키스트들은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자이며, 그이론은크로포트킨으로대변된다.

상호주의나집산주의와는다르게, 코뮌주의는시장을상정하지않는다. 코뮌주의는화폐나그대체재 (노동전표등) 의철폐에근간한다. 그렇기에코뮌주의에는임노동과임금체계가모두존재하지않는다.(“역량에따라일하고, 필요에따라분배한다.”)

아나키즘적코뮌주의는집단소유의개념을노동의생산물까지확장한다. 이것은우리가칫솔을공유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단지모든생산물을필요한 모든이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는의미이다. 크로포트킨을인용하자면, “(국가사회주의자들이) 지금까지옹호한수도승적, 군사적코뮌 (공산) 주의가아닌, 수확되거나생산된생산물들이모두의처분에맡겨져모든사람이원하는만큼가질수있는자유가있는자유코뮌주의”인것이다.

아나키즘적코뮌주의자들은, 화폐가존재하는한, 비자본주의적시장에서조차도자본주의적시장에서발생하는문제와비슷한문제가발생할것이기에, 화폐의철폐를요구한다. 소득은필요를반영하지않으며, 정의로운사회는이결핍을인지해야한다. 시장은공공재나효과적인보건등의필요를충족할수없다. 시장은합리적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에의접근을막는다.(무언가의가격이 5 파운드라는것은그것이얼마만큼의오염을만들어내는지, 그것을만드는노동현장의조건이어떠한지를알려주지않는다.) 시장에서는원자화된개인의행동의결과로인하여 집단적으로비합리적인행동을하게된다.(이를테면, 시장에서살아남기위한경쟁은사람들이더열심히, 더오래일하게할것이다. 그리고이것은과생산을초래하고, 이러한시장신호에반응하여시장에진입하는기업들을낳아결국공황을초래할것이다.) 이윤추구는불확실성을증대시키고, 공황의가능성을증대시키며, 그결과인사회적빈곤을증대시킨다.

아나키즘적코뮌주의에서의자원분배는가격의비교를통해서가아니라, 재화의사용가치와상대적희소성모두를비교하여결정될것이다. 사용가치는긍정적 측면 (얼마나수요를충족하는가) 과부정적측면 (어떤자원을사용하는가, 어떠한오염을초래하는가, 얼마나많은노동을내포하고있는가등) 을동시에고려할것이다. 이를통하여총체적인실질비용에대한정보가가격의뒤에숨지않고드러나, 그것에관하여논의하여, 합리적의사결정을하는데에사용될수있을것이다. 희소성은자신들의생산역량과주문의양을서로소통하며비교할수있는노동조합이판단할수있을것이다. 노동조합이더많은주문을받을수록, 그생산물의희소성지표는올라갈것이고, 이것을바탕으로다른노동조합들은해당물질의대체재를찾을수있을것이다.

근거

말은쉽지만, 그저희망찬생각일뿐아닌가요! 라고말할수도있겠지만, 자유의주주의적경제사상에는실증적근거가차고넘친다.

이를테면, 노동자자주경영과이윤공유는생산성을증대시킨다. 노동자운영기업은자본주의적기업보다더생산성이높다. 이문제에관한 226 개의연구중 94% 는긍정적효과가있다는결론을내었다. 흥미로운것은노동자소유기업이생산성에끼치는긍정적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 의사결정구조에노동자가참여할수있어야했다는것이다.

나아가협동조합에는임금과처우의격차가크지않다. 놀랍지않은사실은, 높은수준의평등이생산성을증대시킨다는것이다.(노동자들이타인을노예화하거나, 타인의노동을착취하여부유해지는것을선호하지않기때문이다.)

주식시장의부재는어떠한가? 주식시장이실물경제에끼치는악영향은더말할필요도없다. 나아가, 주식시장에서경영진과주주들간의소통문제가심각한지를보라. 무엇보다, 주식시장이장기적성장보다단기적차익을더높게평가한다는것을, 그결과로특정한산업에대한과투자를초래하고, 결국위험과도박을증대시킨다는것을생각해보라. 은행중심의자본주의가주식시장중심자본주의보다호경기-불경기순환의정도가매우덜극단적이다.

몬드라곤과같은자본주의하에서성공한협동조합들은일반적으로협동조합그룹을구성하여농업-산업연방의단초를확인할수있다. 그리고이들은많은경우자체적금융기구를가지고있다.(프루동의사상이정합적임을보여준다하겠다.)

그리고세계의다양한사회혁명의예시를보라. 1936 년스페인혁명의레퍼런스를들지않고는어떠한아나키즘적이야기도완결적이지못하다. 그리고이주제에대해서도마찬가지다. 스페인혁명은자유의지주의적자주통제가대규모로이루어질수있다는근거를보여준다. 카탈로니아산업의다수는성공적으로집산화되었으며, 광범위한토지는집단소유와집단통제의원칙으로경작되었다. 더최근의사례를보자면, 아르헨티나에서신자유주의에대응하는반란이발발했을때, 이는문을닫은사업장을확보하는과정을포함했다. 이되찾은공장들의사례는, 사용자가우리를필요로할수는있지만, 우리는사용자를필요로하지않는다는것을보여준다.

달성의방법론

그렇기에, 자유의지주의적사회주의의에대한열망과달성가능성이전술한대로라고할때, 그것을어떻게달성할지에대한의문이문제가된다. 그리고그방법론안에는자본주의안에서조합을건설하고, 지지하는것이포함될것이다.(프루동:

또한의사결정계층이이윤의증대와소수의지배력강화를위하여만들어낸경제적구조와산업적구조가, 자본주의가거부하는것을지향하는사회주의에걸맞다는신기한우연이놀랍지않은가!

신고전학파경제학과마찬가지로, 이러한오류적관념은그에합당한결과를낳는다. 러시아혁명중, 맑스주의자들은볼셰비키가공장위원회가주도하는 (불완전하더라도) 진정한사회주의를, 그들이자본주의로부터물려받은중앙집중적산업구조를건설하기위하여약화시키는데에있어이데올로기적기반을제공하였다. 그리고이는경제와사회주의모두에게재앙이었다.

현재를분석함으로서미래를그리기

맑스주의적관점이오류라면, 우리는미래를현대사회와그경향에대한분석에근거하여다시금그려내야한다.

나는아나키스트들이자본주의를무언가완벽한모형에추상적으로비교하지않으려함을강조하려한다. 프루동이그의저서 < 경제적모순의체계 > 에서주장하였듯, 노동자조직의“현재형태”는“불충분하며이행기적이다.”그는이지점에서유토피아적사회주의자들에동의하면서도, 그의자본주의모순과경향에대한분석과, 사회주의의기반에서그들의상을거부한다.

“우리는계속해서경제적사실과실천에관한학습을계속하고, 그의미를탐구하며, 그철학을구성하여야한다. 사회주의의오류는현실에천착하지않고환상적미래를향해나아가는종교적몽상에있다…”

이자본주의에관한분석과비판은긍정적미래상에반영된다.

이를테면, 프루동은노동자들이그들을노동을통제하고생산을위한“집체적힘”을전용하는사용자들에게“스스로의무기를팔아치우고, 자유를바쳤”기에생산과정에서착취당한다고주장한다. 하지만“집단적힘의원리덕분에노동자들은평등한사람이고, 그우두머리들과같은조합원이다.”“이러한조직은현실적이다. 그조직에참여하는사람은그러해야한다.”“평의회에서의설득력있는목소리”는, “적극적요소”는“평등”에기반하기때문이다. 이는자유로운접근성과사회화를의미한다. 그리고이로서노동자들은작업장에합류하는즉시“조합원의권리와특혜들을누리게될것”이다. 이는“정치경제학의부정과사유재산의소멸을포함하는평등에기반한해결책, 다르게표현하자면노동자의조직”을건설할필요성을의미한다.

오류일뿐이다. 이를테면, 아담스미스는자본주의가어떻게작동해야하는지에대한구체적모델을제시하지않았다. 그는자본주의가작동해온방식에대하여묘사했을뿐이다. 추상적인모형이등장한것은한참뒤에, 신고전학파경제학자들이현체제를정당화하기위하여만들어낸것이었다. 이들은전후경제에서세력으로서최대치를달성했고, 경제학자들은불가능한가정들에기반하여부적합한모형들을제시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모형들은지금까지, 그리고아직도사용되고있으며, 현실의경제와현실의인민들에게끔찍한것을강요하고있다.

우리는신고전학파의진실한신도들에게감명을주기위하여이러한것을반복하지는않을것이다.

(최선의경우) 불가능하거나, (최악의경우) 국가자본주의인맑시즘

사회주의경제학을바라보는다른방식은맑스와연관된것이다. 맑스는사회주의에관하여는거의쓰지않았고, 그가유토피아적사회주의자들과그들의세부적계획에반대하였다는것도분명하다. 하지만안타깝게도, 그가남긴계획에대한소수의저작들은사회주의의골칫거리가되었다.

그가프루동의시장사회주의에대안으로제시한 < 철학의빈곤 > 에서도이문제는드러난다. 이책은단세줄로요약할수있다. 이책이야말로구성의실패에관한훌륭한예시로서, 두명사이의경제관계를논의할때에만실현가능한것이다. 이책은수백만사이의경제관계를, 그수백만이구성하고있는생산물과작업장에대하여논의할때에는철저히실현불가능한것이다. 그렇기에이책은단순히유토피아적이며, 맑스가그의경제학이어떻게작동하는지설명하고자시도해보았다면, 그것이명확해졌을것이다.

맑스는 < 철학의빈곤 > 에서주장하던즉각적인 (중앙집권적) 공산주의를금새포기했고, < 공산주의자선언 > 에서는국가자본주의라는이행기를주장했다. 국가자본주의는“사회주의”가서서히자리잡아자본주의적구조위에중앙집중적으로세워진“사회주의”가되기위한근간이될것이었다. 하지만이중앙계획에대한옹호은자본주의사회에서기업들이그규모를어떻게키우는지에대한추정에근거하여, 시장을광범위한의지적의사결정으로대체하는오류에기반하고있었다. 자본주의아래에서, 의사결정은소수의손에맡겨지게되는것은맞지만, 맑스는대기업들에의한계획이가능한것은그들이단하나의요인, 즉이윤에만기반하여있기때문임에대하여의문을가지지않았다. 자본주의에서의이러한축소주의가마치중앙계획이작동할수있을것처럼보이게하는요인이된다.

“새로운사회는옛사회의심장에서만들어질것이다.”) 이는사회화와협동조합을직장폐쇄, 구제금융, 국유화의대안으로선전하는것역시포함될것이다.

하지만대부분의아나키스트들은이것이저항의문화를, 자본주의와국가에대한집단적투쟁을조직하는과업의일부로바라본다. 즉, 직접행동 (파업, 시위, 점거등) 을조직하고, 모든투쟁이그내부인들에의해자주적으로통제되는것을, 이과정에서모든조직이아래로부터자주통제되는것을분명히하는목적의일부말이다. 이목적은인민들이작업장을, 집을, 토지를점유하는것을시작하게하고, 결과적으로사회화를현실로만들것이다. 우리의투쟁을스스로조직하는과정에서, 우리는우리삶을통제하는방법을배울것이다. 현체제에대항하는투쟁의조직을건설하면서새로운사회의설계도를그려낼수있을것이다.

함께하면우리는세계를바꿀수있다!

아나키스트경제학

도입

경제학은많은경멸에시달리고있다. 그리고이것은정당하다. 말라테스타가이야기하였듯, “성직자가모든것이신의뜻이라설교하여인간을유순한신민으로만든다면, 경제학자는모든것이자연법칙이라말하여그렇게한다.”그렇기에“누구도빈곤에책임이없으며, 빈곤에반하여반란하는것은의미가없다.”프루동은“정치경제학은가진자들의경제학이며, 사회가필연적이고유기적으로빈곤을생성한다는이론의적용”이라고말한다그리고이것은정당하다. 세계곳곳에서빈곤에시달리는인민들은프루동에동의할것이다. “경제학자들은사회의적이다.”

흔한대안들이더나쁜것으로드러난것말고는, 바뀐것은없다. “모든시민들은국가로부터임금을받는고용인으로바뀐다. 사회는총체적으로하나의사무실이, 하나의공장이될것이다.”는레닌의시각을도출할수있는것은비-노동자뿐이다. 이러한형태의사회주의가빈곤함은, 우리가“총체적경제를우편서비스를따라조직해야한다”는레닌의주장에서총체적으로드러난다. “우편으로향하다 (going postal)” 이라는표현이왜생겼는지를생각해보자.[1]

크로포트킨이오래전부터적었듯, 맑스주의자들은“사회주의국가라는관념이모두가국가의피고용인이되는국가자본주의의체계와다른것이무엇인지설명하려하지않는다.”

자본가들을관료로대체하는것보다는더나은미래상이필요하지않겠는가.

대안의필요성

아나키스트들은오랫동안이러한제한적미래상에대한투쟁을벌여왔다. 이를테면엠마골드만은“실질적부는효용과아름다움을내포하고있어, 이를통하여강

[1] 역주 - 1986 년부터 1993 년까지, 미국의우정노동자들은다종다양한사업장내총기사고에연루되었다. 1997 년, < 상트페테르스부르크타임즈 > 가미국의우정사업본부에대해평가하면서, ’going postal’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고, 과도한직장내스트레스로인한사업장내폭력사태를칭하는용어로사용되기시작하였다.

하고아름다운육체와영감을주는환경을만들어낼수있는것”이라고주장했다. 이러한것을경제학교과서에서찾을수있는가? 크로포트킨은다음과같이말한다.

“경제학자들은이윤, 지대, 자본에대한이자의이름으로, 토지나자본의소유자들의이익은임노동자들의저임금노동에서비롯할것이라말한다. … 여기에사회경제학의핵심주제인‘무엇을, 어떻게생산할것인가’라는거대한문제는필연적으로내재되어있다. 결국모든경제학논문에서가장찾기어려운주제는, 인간의필요를만족하는데에필요한에너지의경제학의구체적형태가된다.”

이는사회주의가과학을넘어자본주의와부자를옹호하는이데올로기가된부르주아경제학에종언을고할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또한이는경제학이진정한과학으로태어날새벽을의미하기도할것이다.

아나키스트경제학은무엇인가?

그렇다면아나키스트경제학은무엇인가? 나는이것이두가지의미를가진다고바라본다. 첫번째의미는, 자본주의에대한아나키스트적분석과비평이며, 두번째는아나키즘적경제가어떻게기능할지에대한이론일것이다. 이둘은당연히상호연관성을가지고있다. 우리가자본주의의무엇에반대하는가는자유의지주의적경제에대한우리의상에반영될것이고, 자유로운사회에대한우리의희망과꿈이분석의길잡이가될것이다.

하지만아나키스트경제학에대하여논의하기전에, 비자유의지주의적대안들에대하여다룰필요가있을것같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경제의문제를바라보는데에는두가지방식이있어왔지만, 두방식모두가오류였다. 하나의방식은미래사회에관한구체적인묘사를제공하는것이고, 다른하나의방식은사회주의에관한짧은언급만하고넘어가는것이다.

미래식당에서의레시피는다음과같을것이다…

첫번째부류의사회주의자들에는푸리에나생시몽부류가있다. 이들은상세한계획을제시했고, 곧바로두가지가명확해졌다. 그들의완벽한공동체는달성이불가능하다는것, 그리고그들의엘리트주의적본석이다. 이들은정말로진지하게그들이가장잘안다고믿었고, 그들이“사회주의”라칭하는것에대한상에서, 민주주의와자유는그다지중요하지않았다. 프루동은이체제가전제정이라고공격했다. 이는옳았다.

이들의미래상은그다지열망할만하지도, 실천적이지도않았다. 하지만이를 떠나, 우리가미래사회에관한구체적인묘사를제공할수있다는것에함축된것은